

안도 타다오 교회건축의 디자인특성에 관한 연구
the Design Character of Ando Tadao's Church Architecture

이규백(Lee Gyoobae)
울산대학교 디자인대학

이 논문은 2001년 울산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 1-2. 연구의 방법

2. 본론

- 2-1. 안도 타다오의 교회건축
 - 2-1-1. 로꼬 교회
 - 2-2-2. 물의 교회
 - 2-2-3. 빛의 교회
- 2-2. 안도 타다오 교회건축의 디자인 특성
 - 3-1-1. 전이공간의 형성
 - 3-2-2. 빛과 그림자의 의미화
 - 3-3-3. 상징의 구조화

3. 결론

참고문헌

(要約)

현대 교회건축은 그 형태와 공간의 구성 및 디자인방법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교회들이 기독교적인 정체성의 표현이 결여된 채 건축되어 지고 있다.

안도 타다오의 교회건축의 특성은 전이공간, 빛과 그림자 그리고 상징의 효과적인 구성으로 나타난다. 전이공간은 한국과 일본 등의 사찰에서의 공간체험의 프로세스를 도입한 것으로 보이며 그것은 예배당을 향해 접근하는 동안 사색의 시간을 제공하며 속의 공간에서 성의 공간으로의 극적인 반전을 가능하게 한다. 안도 타다오는 자립벽을 경계로 성과 속의 공간을 구획하였다. 초기 기독교건축 이래로 빛은 교회건축의 중요한 요소였다. 안도 타다오는 현대교회건축이 잃어버린 빛과 그림자를 효과적으로 도입하여 공간의 깊이와 신성을 표현하였다. 안도 타다오에게서 상징은 모든 것이 절제되어진 그의 건축공간에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표현 방법이다. 그는 상징을 건축이나 공간에 부가적인 요소가 아니라 건축과 일체가 되게 표현함으로써 공간 전체가 하나의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나타내는 오브제가 되도록 하였다.

(Abstract)

Modern church architecture in Korea have many problems in the shape and composition of space and design method. Many church were built without consideration of the identity of the Christian religion.

The characters of Ando Tadao's church architecture are using the transition space, light and the symbol. The transition space similar to the approach process using in Asian temple. It make a meditative space for the church during approach to the chapel. Ando Tadao make meditative space by using self-support wall. In here, self-supporting wall divide space as the holy space and the common space. Light is very important element in church architecture. He introduce light and shadow in the chapel more significant element. Light and shadow make the space with very dignity. Also, Ando Tadao use symbol as important element. It make the identity of Christian religion. He make that as a part of structure. The well-controlled symbols change the simple space to more religious place.

(Keyword)

Ando Tadao, Transition space, Light, Symbol, Church Architecture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교회건축은 시대에 따라 혹은 신학의 변천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 하였고 예배의식의 변화에 대응하여 예배공간의 구성과 형태도 변화하여 왔다. 과거 그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인정받던 교회건축은 이제 더 이상 대표성을 따지도 못하며 기독교가 가지는 고유한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에도 미진한 점이 많다. 또한 지역적인 맥락에 대한 고려가 결여됨으로 인해 과거와 같은 지역의 랜드마크적인 성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현대의 예배공간은 예배의식의 변화와 예배규모에 대응하여 대규모 강당 혹은 관람석과 같은 유형의 공간으로 획일화 되고 있고 종교적인 정체성의 표현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현대 건축가들의 교회건축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새로운 교회건축의 접근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속적인 연구과정의 하나로서 이번 연구에서는 일본의 대표적인 건축가인 안도 타다오의 교회건축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안도 타다오는 자신만의 독특한 공간구성의 원리와 건축 재료의 사용을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건축가이다. 그의 건축은 장식이 배제된 공간의 본질적인 것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결과들을 보이고 있다. 절제된 공간의 형태와 마감재의 사용 그리고 공간의 균질성등에서 서구의 미니멀리즘적인 경향을 보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서구의 현대건축에서 느낄 수 없는 인간적이고 풍부한 감성의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 지극히 동양적인 감각과 사고를 가지고 서구정신의 대표적인 건축공간인 기독교 교회건축을 구현한 그의 교회건축에 나타나는 디자인적인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기독교 전래이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들게 성장을 거듭하여온 국내 기독교의 양적, 질적인 성장을 수용 할 수 있고 기존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수 있는 새로운 교회건축의 접근방안을 모색함이 연구의 목적이다.

1-2. 연구의 방법

교회건축은 외부의 형태뿐 아니라 실제적인 예배행위를 수용하는 예배공간의 디자인적인 독창성이 매우 요구되는 공간으로 종교적인 정체성의 표현이 주된 고려사항이 된다. 그러나 현대 기독교 건축에서는 그 건축적 외형이나 공간의 내부형상에서 신성의 표현 또는 기독교적인 특성의 표현이 적극적으로 표현 되지 않거나 단편적으로 적용되어진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다.

기독교 건축에서 신성의 표현은 각 시대를 통해 다양한 양식으로 표현 되었다.

안도 타다오는 로꼬 교회(1986년), 물의 교회(1988년), 빛의 교회(1989년)와 같은 3개의 교회건축과 2000년 교회를 위한 설계경기 출품안인 1개의 계획안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그는 주거, 상업건축등에서 보여지는 공간의 본질에 대한 집착과 일관적인 방

1) '한국 현대 카톨릭 성당 건축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서 김정신교수는 "한국 건축은 거대화,세속화,서양 건축 모방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라고 하였다.(조선일보,2002.6.19)

법을 기초로 종교적인 정체성의 표현에 독특한 조형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도 타다오의 교회 건축중 실제적으로 건축되어진 3개의 교회건축을 통해 그가 구현하고자한 기독교적인 신성의 표현요소와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는 국내, 외에 출간된 안도 타다오의 작품집과 그의 기사와 작품이 실린 전문서적을 중심으로 하였다.

2. 본론

2-1. 안도 타다오의 교회건축

2-1-1. 로꼬교회(1985-1986)

로꼬 교회는 1,000m 높이의 로꼬산 정산 부근의 경사진 녹지에 위치하고 있다. 교회는 예배당, 종탑, 지붕이 있는 열주, 그리고 경관의 한 부분을 확고히 차지하는 정원의 자립벽으로 구성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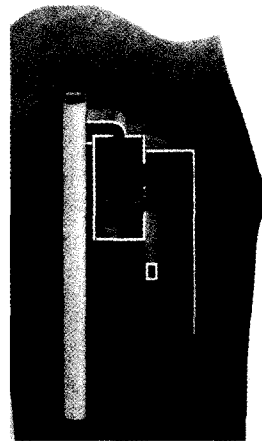


그림1)로꼬교회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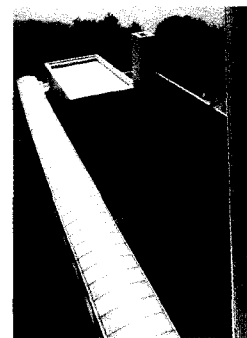


그림 2)로꼬교회전경

있다. 교회는 콜로네이드를 기준으로 45도로 배치된 계단을 통해 오른 후 부채꼴 형태의 마당에서 단변이 2.7m이고 장변이 40m인 선형의 콜로네이드를 통해 교회로 진입할 수 있다. 반투명유리로 덮인 주랑 공간을 통과하면서 신도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교회의 성스러운 세계 속에 빠져들게 된다. 주랑의 맨 끝은 열려 있어서 숲과 먼 바다의 장관을 바라볼 수 있다. 태양 빛은 반 투명 유리를 통과하면서 부드럽어지고 걸러져서 가늘고 긴 주랑 공간을 고르게 채운다. 부드럽고 허공에 떠다니는 듯한 분위기의 주랑을 지나면 예배당이 나오는데 이곳은 반대로 직사광선이 방향성을 가지고 내리쬐다. 이 교회의 주제는 그림자와 빛의 연속 즉 빛과 어두움의 대조이다.

예배공간은 그의 일반적인 건축어휘인 지극히 절제 되어진 단순함을 보여주고 있다. 좌측에 있는 큰 창을 십자로 나누는 기둥과 보는 태양빛을 받아들여 바닥에 뚜렷한 십자가 모양의 그림자를 만든다. 자재를 콘크리트, 돌, 철, 유리로만 한정된 이 단색의 공간은 외부의 초록빛을 실내로 끌어 들여서 내부풍경으로 만들어 자연의 깊이를 더한다.2) 출입자들은 예배공간 후면의 출입구를 통해 예배공간으로 접근하게되고 진입부의 바닥이 전면의 계단부 보다 높은 계단식의 형태를 지닌다.

2) 건축디자인, Tadao Ando, 1998, p112

예배공간은 노출 콘크리트의 표면이 주는 검소함과 엄격함을 나타내고 있다 바닥재료는 사암이 사용되었다.

예배공간에 유입되는 빛은 교회의 긴 회랑에서의 은유적인 빛 보다 직접적인 빛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계단 상부의 톱라이트를 통해 들어오는 빛은 예배공간에 신의 계시와 임재를 의미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개방된 창을 통한 빛은 인간과 자연의 일치와 교감이라는 수평적인 관계를 유도하고 계단 상부의 빛은 신과의 만남이라는 수직적인 관계의 형성을 의미한다.

예배공간에서 사용되는 상징은 직접적인 표현으로서의 십자가 형상이다. 좌측 창틀 형식의 십자가는 개구부의 면적인 분할이라는 조형적 역할에 더하여 십자가의 직접적인 형상화를 나타낸다. 전면 계단부의 십자가는 철구조물로 되어있는 매우 가는 모양이다. 이 십자가는 천창으로부터의 빛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두움과 밝음의 상반되는 효과를 부여하고 와이어에 달려 공중에 떠있는 형태는 극적인 긴장감을 만들고 있다.

2-1-2. 물의 교회(1985)

물의 교회는 일본에서 가장 추운 지방인 북해도 중앙산맥의 한 고원에 자리잡고 있다. 이 지역은 봄과 여름에는 온통 초록으로 뒤덮여 있다가 겨울에는 끝없는 순백의 세계로 변한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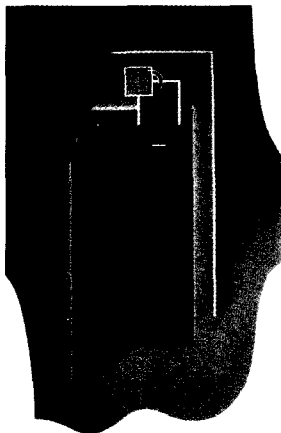


그림3) 물의 교회 배치도



그림4) 물의교회전경

교회는 토막 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건물은 근처에 있는 물의 극장과 남·동방향으로 약 400m정도 떨어진 곳에 배치되어 있고 이러한 두 건물은 같은 강에 접해 있어서 물에 의해 연계되어 있다. 교회의 진입은 건물을 우회하면서 건물과 인공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L 자형의 자립벽을 따라 접근하게 되는데 진입과정에서는 직접적으로 물을 볼 수 없지만 물소리는 들을 수 있다. 그러한 자립벽을 돌아 180도 회전하면 눈앞에 수면이 전개되며, 물소리를 들으면서 완만한 경사로를 따라 올라가면 유리로 둘러싸인 건물입구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진입방법은 방문자에게 기대감을 느끼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종교적인 의미에서 성스러운 공간에 도달하기 위한 속의 세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배당은 평면상으로 크고 작은 두 개의 겹쳐진 정사각형으로 구성되고 주위의 흐르는 시냇물

을 끌어 들여 만든 인공연못의 가장자리에 있다. 예배공간은 단순한 입면체의 모습을 하고 있다. 예배공간에 들어서면 다시 한번 평온하게 펼쳐진 연못과 물위에 솟아있는 큰 십자가가 계단 유리벽을 통해 보인다. 연못을 향해 벽면 한 면을 완전히 개방함으로써 공간의 방향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 유리벽은 미닫이문처럼 전체를 옆으로 밀수가 있어서 교회가 순수한 자연그대로의 연못으로 열리는 효과를 볼수 있다. 사람들은 여기서 물소리, 나무의 향기, 새들의 노랫소리들을 통해 직접 자연을 만나게 된다. 개구부를 통해서 보는 자연과 흐르는 물은 종교적인 엄숙함과 평안을 부여하고 있다. 바닥재료는 검은 사암을 사용하였고 벽면은 노출 콘크리트이다.

물의 교회에서 빛은 보편적인 은혜로서의 빛으로 표현되고 있다. 전면 창을 통해 내부공간으로 가득히 밀려오는 빛은 무소부재의 신의 표현으로 보여진다. 이곳에서 상징은 예배공간내부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상징의 사용이 아니라 전면 창을 통해 보이는 외부의 연못 위에 우뚝이 솟아 있는 십자가이다. 십자가 주위를 흐르는 물은 예수가 그 공생애를 보냈던 갈릴리 호수를 의미하거나 인간이 건너야할 요단강을 의미한다. 물의 교회에서는 주간의 태양광의 효과 뿐 아니라 야간의 인공조명에 의한 효과를 고려한 설계를 하였다. 젓빛 반투명 유리에 사방이 둘러싸인 어프로치는 빛의 상자이며 강력한 직사광과 부드러운 투과광이 뒤섞이며 사람들은 빛의 홍수에 잠긴다. 이 빛의 미묘한 콘트라스트가 이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엄숙한 생각을 유발한다. 이 빛의 상자는 야간에는 인공 조명에 의해 어두움 속에서 빛을 뿜어내는 상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2-1-3. 빛의교회(1989)

빛의 교회는 오사카 교외의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의 목조교회와 목사관이 있는 부지에 증축된 건물이다. 건물의 배치는 기존건물과의 맥락과 채광관계를 고려하여 결정 되었다. 교회의 진입은 도로로 부터 기존의 교회를 통과한 후 원호형태의 경사로를 지나서 새롭게 계획된 교회 건물보다 높이가 18cm 낮은 15도 기울어진 자립벽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벽은 교회의 출입구와 내부공간을 분절하며 자립벽에 의해 형성된 폭 1.6m 높이 5.35m의 개구부를 통하여 180도 반전하면서 진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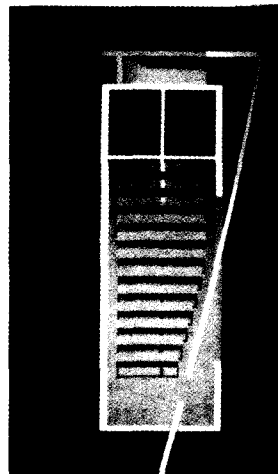


그림5) 빛의교회평면도

직육면체 모양의 교회는 예배당과 출입구를 분리하는 벽에 의해서 15도 각도로 잘려져 있다. 계단 벽에 뚫린 십자가 모양의 슬릿을 통해 빛이 깊숙한 어둠을 뚫고 스며든다. 바닥과 회중석은 거친 비계판자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는 경제적이

며 공간특성에 매우 잘 어울린다. 사람들의 손이나 발에 접촉되는 부분에 주로 사용된 천연재료는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이 건물에 적용되는데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빛은 어두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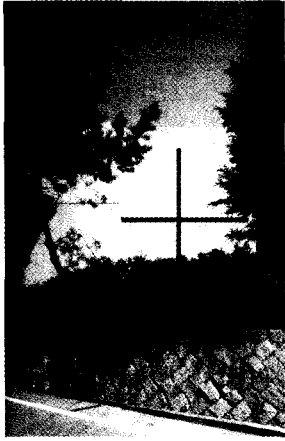


그림6)빛의교회전경

배경으로 있을 때에만 그 영
 통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개구부는 절제되어
 있다. 자연의 존재는 또한 빛
 이라는 요소로만 제한 되었
 고 과도하게 추상적으로 묘
 사되었다. 이와 같은 추상성
 에 대응해가면서 건축은 끝
 임없이 더 순수해진다. 태양
 광선과 빛의 각도에 따라 움
 직이는 십자가 형태에 의해
 바닥에 형성된 직선형태는
 순수와 함께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표현한다.

2.2. 안도 타다오 교회건축의 디자인 특성

공간은 무형의 실체로서 그 공간의 경계를 형성하는 표피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공간은 기능을 포용하며 그
 기능을 위한 지원 수단으로서의 다양한 가구와 집기들로 구성되
 고 있다. 따라서 실내공간은 기본적으로는 공간의 형태 즉 경계의
 형태를 기초로 하고 있다.

기독교 건축 특히 예배공간에서 신성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은 물
 리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는 대상이 아니라 그 공간을 형성하는
 물리적인 실체들의 집합이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 되어지는 것이
 다. 따라서 물리적인 공간 구성요소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공간은 실체가 없고 건축적인 공간은 물체라기 보다는 하나의 개
 념이므로 적절하게 배치된 요소들을 설명할 수 있을 때에만 보여
 질 수 있기 때문에 공간보다는 물체를 보는 인지적 성향 때문이
 라고 할 수 있다.³⁾ 따라서 추상적인 대상으로서의 실내공간의 특
 성에 대한 파악은 실내공간을 형성하는 실제적인 대상의 특성과
 그들의 구성방법 즉 상호관계성에 대한 특성 파악을 통해서 가능
 할 것이다.

안도 타다오의 교회건축에서 디자인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이 나
 타난다.

3-1-1. 전이공간의 형성

공간을 신체적 감각으로 체험한다는 건축적 표현인 '공간에서의
 움직임'은 현대건축에서 주요한 건축어휘로 나타나고 있다.⁴⁾ 외부
 공간에서 환경과 건축이 융합하여 만들어내는 공간체험은 건물을
 향해 진입하는 사람에게 건물의 전체적인 인상을 주기 때문에 중
 요하다.⁵⁾

안도 타다오의 교회건축에서 공간진입의 시퀀스는 그의 건축에서
 표현되는 공간의 연계성, 장소성의 표현으로서의 외부공간의 구성

을 넘어 성과 속 혹은 선과 악이라는 공간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강한 대비 또는 전이의 공간으로서 종교성을 표현하는 강한 의미
 요소로서 표현되고 있다.

안도 타다오의 교회건축에서 전이공간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서구의 교회건축은 외부와 내부공간의 전이 영역으로서 입구의
 엔터런스나 .홀을 통한 순간적이고 직접적인 접근을 보여주고 있
 다. 그러나 안도 타다오의 교회건축은 동양의 사찰건축에서 보여
 주는 일련의 과정으로서의 공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이 것
 은 국내에서도 김수근에 의해 경동교회 등 그의 일련의 종교건축
 에서 표현되어진 수법으로가 일상적인 속의 세계로부터 성스러운
 세계로 향하는 구도자의 심리적인 준비과정과 그를 통한 속에서
 의 일탈과 성으로의 전이를 의도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안도 타다오는 항상 건물의 도입부를 최단거리의 동선에서
 벗어나 회유시킴으로서 주위의 풍경을 다양한 변화와 함께 감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⁶⁾

공간구성은 시간성에 의해서 연결된 장면을 종합하여 인간의 감
 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부지에서 재료의 투명성을 획득
 하는 방법이며 공간이라는 추상적인 존재에 변신하는 순간을 제
 험하게 하며 건축은 재료를 겹쳐 쌓으면서 저절로 생긴 형식을
 체험하고 음악과 같이 벽이 만들어 내는 공간의 울동감을 느끼는
 체험의 총체이며 시각이나 촉각 오감을 넘은 직관을 자극하는 방
 식을 취한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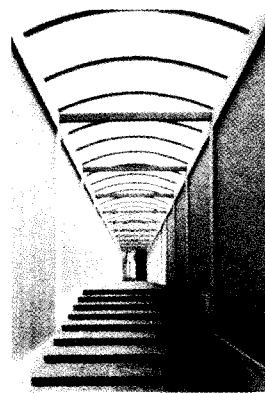


그림7) 로꼬교회 진입부회랑

로꼬 교회에서는 빛이 쏟아져 들
 어오는 긴 회랑을 지나므로 그 다
 음에 전개되어질 공간에 대한 기
 대와 함께 심리적으로 속의 공간
 을 거쳐 사회 혹은 은혜의 공간이
 라는 어두움과 빛이 공존하는 성
 의 공간으로서의 전이를 직접적
 으로 체험하게 하였다.

물의 교회에서는 자립벽을 따라
 안쪽으로 유도되면서 자연과 벽
 으로 둘러싸인 물의 공간과 만나
 게 된다. 건축구성에 있어서 둘러
 싼다고 하는 것은 내부와 외부라

고 하는 경계의 감각을 생기게 하면서 장소를 인식하게 한다. 또
 한 공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공간에 둘러싸인 안도감을 느끼
 게 하며 체험자가 장소를 소유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과정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물위의 십자가를 마주보게 된다.
 이러한 극적인 장면의 연출은 중심이라는 방향설정에 의해 공간
 을 구조화하여 주위의 공간을 끌어 모음으로서 장소의 감각을 강
 조하게 된다.

빛의 교회에서는 그 대지의 제한적인 요건 때문에 짧은 동선 상
 에서 내부공간과 교체되는 자립벽을 통해서 공간의 전이를 강화

3) 인테리어드멘션, 조이 모니스 말러, 프랭크 보드바르카 저, 박영순,이현수
 역, 디자인하우스,p71

4) 전인호, 건축공간에 있어서 공간건축언어 구성체계에 관한연구, 경기대
 학교 건축대학원 논문집 제1집, 1997, p49

5)문정민외 2인, 안도 타다오 건축의 외부공간에 나타난 진입시퀀스의 구성
 방식,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9호, 2001, p27

6) '한국현대 카톨릭 성당건축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서 김중수 신부는
 성당도 불교 사찰처럼 마당을 활용해 외부세계와의 단절을 시도하자고 제
 안 하였다.(조선일보.2002.6.19)

7) 김수근의 경우는 우리나라 주거지의 골목길과 사찰 진입공간 이미지를
 모두 적용하였다.

8) 이영일,안도 타다오, 가능성을 찾아서, Plus 9606, p149

9) 高山止雄, 벽의 탐구-Tadao Ando, 제6장 벽의 미학-공간의 정신분
 석,1994

게 의도하였음을 볼 수 있다. 자립벽은 속의 공간과 성의 공간의 절대적인 분절을 의미하며 이 벽을 따라 진입하는 과정은 특별한 종교적인 사유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 공간의 마지막에서 출입구를 통해 교회내부로 진입하면 공간은 처음의 진입 방향과는 180도 반전된 극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안도 타다오에게서 전이 공간은 속의 공간에서 성의 공간으로의 시간적, 공간적인 연결수단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사유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즉 속의 공간에서 성의 공간으로의 반전을 통해 종교적인 체험을 유도하고 실제적인 예배행위가 이루어지는 예배 공간에 대한 경외감과 신성감을 강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안도 타다오의 교회건축에서 각각의 교회는 유사한 형식의 자립벽을 따라 진행하다 방향의 극적인 전환과 함께 예배공간이 드러나고 그 공간은 빛-어두움-빛이라는 일련의 시퀀스를 가진 공간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안도 타다오는 건축에서의 공간구성수법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의 건축은 소설을 읽는 것과 같은 스토리성에 의해 다음에 전개되는 공간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공간체험을 과정적으로 만들려고 한다. 건축을 체험한다는 것은 체험하려고 하는 사람의 예상을 빗나가게 하여 감동의 차원을 크게 부여한다.”

안도 타다오의 교회건축에서 전이공간의 설정과 다양한 구성은 그의 공간구성 수법인 스토리성을 기초로 한 종교적인 변용으로 보이며 공간을 구획하는 자립벽은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여 극적인 반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사용 되었다.

3-1-2. 빛과 그림자의 의미화

빛은 비물질적인 실체로서 그 현상을 드러낼 때 빛을 받는 소재와 형태 및 기타 제반 조건들과 상호 작용하여 조형적 측면에서 새로운 시각적 이미지를 창출하며 그 시각적 효과를 배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림8) 빛의 교회 -빛과 그림자
에 더하여 신의 계시 또는 현시, 신의 임재 현상으로서의 빛을 의미하고 있다.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나타난 많은 유형의

빛은 인간이 사물을 보게 하는 필수 불가결한 매개체이다. 그 뿐 아니라 빛은 자체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고대로부터 빛은 신의 속성과 결부되어 거룩히 여김을 받았다. 교회건축은 신을 표상한다. 그러므로 불가시한 신의 영광이 교회내부에 가시적으로 도입되어야 했다. 빛은 이를 위한 좋은 도구였다.¹⁰⁾

기독교에서 빛은 곧 하나님의 나타남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독교 건축에서는 어두움을 밝히는 물리적인 요소로서의 빛

건축공간은 빛을 통한 신의 표현이라는 개념의 형상화를 실현하고자 노력 하여왔다. 안도 타다오의 교회건축에서 빛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사용되고 실내에 도입되고 있다.

로꼬 교회에서 빛은 죄사함의 매개체로서 진입부인 긴 회랑에서 사용되었다. 균질하게 들어오는 빛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은혜와 속죄함의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예배공간에서는 실내로 도입되는 빛을 십자가를 형상화한 구조체를 통해 4등분하여 도입하고 있다. 실내로 도입되는 실제적인 형상으로서의 빛에 부가하여 십자가의 그림자를 생성함으로써 종교적인 성스러움과 상징성을 강하게 유도하고 있다. 물의 교회에서는 전면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 이외에 야간에 조명으로 인한 전반적인 빛의 도입을 시도함으로써 종교적인 영원성을 추구 한 것으로 보인다. 로꼬 교회와 물의 교회에서 빛은 배경으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체험적 요소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빛은 십자가를 비춤으로서 예배공간과 교회주변에 그림자로서의 십자가를 만들고 또 시간의 변화에 따라 그 모양과 방향, 크기를 변화시키고 있다. 빛의 교회에서 사용된 빛은 그 도입 방법부터가 매우 적극적이고 강력하며 공간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안도의 빛의 철학은 공간에 있어 변화의 상사 속을 사선 15도의 빛의 관을 통과시킴으로서 정적인 공간에 동적인 요소를 의도적으로 첨가하여 정중동의 변화추구와 대지의 협



그림9) 물의 교회 야경

소함에 의한 공간의 단편성을 극복하기 위한 접근의 다양한 분절을 통하여 드라마틱한 연출을 한다. 경사진 빛의 관은 완전히 벽과 천장으로부터 독립되어 침묵의 공간 내에서 조용한 울림을 전해주고 있다. 교회내부에서 빛은 크게 재대정면에 있는 십자창과 매스와 판의 교차에서 생겨나는 측면창, 경사진 판과 천장과와의 분리에 의한 빛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빛의 효과는 더욱 종교적인 숭고한 공간으로 의식화한

다.¹¹⁾

빛을 통해서 안도는 공간의 물리적인 효과 속에서 느끼기 힘든 감정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의 가치를 보여 주었다.¹²⁾

안도 타다오의 교회건축에서 빛은 고딕시대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하면서 다양하게 채색되어 실내로 유입되는 화려한 빛과, 현대건축에서 무작위로 실내로 유입되는 깊이와 느낌을 상실한 건조한 빛의 장,단점을 적절히 조화시켜서 빛을 느끼고 보는 새로운 체험과 기독교 건축에서 빛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실내 공간을 만들고 있다.

3-3-3. 상징의 구조화 및 일체화

상징(symbol)이란 사물을 전달하는 매개적 작용을 나타내는 말로 “어떤 볼수 있는 사물이 다른 어떤 실체의 의도를 드러 내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종교적인 것을 드러내고 표현해 주는것

11) 최은영.신정, 전갈서, p525

12) 프랑수와 실링, 땅과 역사에 따라 처신한다. 안도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Plus 9507, p153

10) 이강혁, 심우갑, 근대이후 교회건축에서의 빛의 도입 및 표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제16권제1호,1996,p.69



그림11)로꼬교회 예배공간

하게 하였다. 현대의 교회건축에서는



그림12) 물의 교회 예배공간의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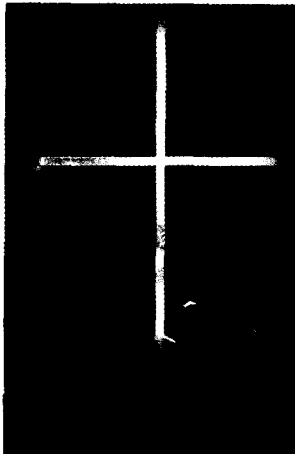


그림13)빛의교회 예배공간의 상징

입이외의 다른 상징적 요소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기독교적인 상징과 장식이 완성되어진 내·외부 공간에 부가적으로 사용되어오던 현대 교회건축이 보여주는 기존의 방법을 벗어나 공간의 구조적인 형태를 십자가의 형상으로 사용함으로써 공간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밀도를 높인 것으로 파악할수 있다.

로꼬 교회에서는 창 의 구조적인 형태와 전면의 매달린 십자가를 사용하였고 물의교회에서는 예배공간을 벗어나 전면의 연못 위에 있는 십자가를 전면창을 통해 실내로 도입하였다. 빛의 교회에서는 기존의 십자가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을 벗어나 보이드(void)된 공간을 십자가로 형상화하여 그 곳을 통해 실내로 쏟아져 들

어오는다.¹³⁾ 기독교 건축의 전성기인 고딕시대는 교회건축에서 신앙을 표현하는 많은 상징과 장식적인 요소들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근대주의 건축의 등장으로 장식은 죄악시되었고 오늘날 장식이 배제된 단순한 형태의 교회건축이 나타나게 되었다.

포스트 모던 건축의 등장은 장식이나 상징에 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가능케 하였다. 현대의 교회건축에서는 그 신학적인 관점의 차이로 인해 천주교회는 고딕식의 상징과 장식을 교회건축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개신교회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천주교회에서는 상징적인 요소들의 사용에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공간에 적용되며 이에 따른 다양한 예술작업들이 활성화 되어있다. 대표적인 요소로는 십자가, 성모상, 예수고난 14처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개신교회는 교단 중심주의와 천주교회와의 신학적인 차이로 인해 교회에서의 장식이나 상징의 도입은 지극히 제한적이거나 개별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질적 수준이 결여되고 비합리적이며 교회건축을 통한 종교성의 표현에 미흡한 실정이다.

안도 타다오의 교회건축에서는 십자가의 직접적인 도

어오는 강력한 빛을 의도하고 있다.

안도 타다오는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를 건축의 형태구성에 직접적으로 도입하거나 지극히 검소하고 절제되어진 공간에 공간과 일체화된 오브제로서의 십자가를 사용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 시켰고 그의 일관된 공간구성의 프로세스를 유지하면서 전혀 새로운 종교적인 공간을 구축 하였다..

3. 결론

현대 교회건축은 모더니즘의 매너리즘과 기독교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기독교가 급성장한 국가중 하나이다. 최근 국내의 교회건축은 과도한 물질적, 양적 성장의 모습을 추구하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각 교파들의 교세 확장정책에 따른 수많은 소규모 개척교회들의 설립은 교회건축과 예배공간의 종교적 특성에 대한 고려나 디자인적인 접근방안이 결여된 단순한 기능위주와 물량주의적인 공간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서 공간 본연의 의미 추구라는 일관된 작업을 보여주고 있는 안도 타다오의 교회건축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안도 타다오 교회 건축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 속의 공간의 매개공간으로서의 전이공간을 설정하고 그 공간의 이동과정을 통해 종교적인 체험과 공간의 극적인 반전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전이공간은 동양의 사찰에서 나타나는 공간전개 과정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보이며 교회건축의 진입부를 단순한 이동의 공간이 아니라 사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공간의 극적인 전환을 위해 자립벽을 공간 분리의 중요한 요소로서 사용하였다.

둘째, 현대건축에서 간과해버린 빛의 의미성에 주목하고 빛의 도입 방법을 다양화하여 무형의 빛을 기독교적 의미를 지닌 유형의 요소로서 표현하였다. 또한 빛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조절하여 실내공간에 빛과 그림자의 강한 대비를 통해 신과 인간, 부활과 죽음,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의미를 구현하고 공간의 종교적인 특성과 예배공간이 가지는 경건함과 엄숙함을 부각시켰다.

셋째, 상징적인 표현요소를 최소화하고 구조체와 일체화 함으로서 상징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 하였다. 현대 교회건축이 근원적인 형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과도한 장식적인 요소들을 사용하여 더욱 공간을 혼란하게 하는것과는 대조적으로 미니멀한 그의 공간구성의 기본적인 개념에 충실하면서 상징적인 요소를 억제함으로써 더욱 그 상징성을 강하게 부각시켰다.

안도 타다오의 교회건축은 검소하고 절제된 재료의 사용과 공간구성의 단순함이라는 그의 기본적인 개념에 충실하면서 기독교 정신의 의미론적인 요소인 빛과 그림자, 상징적 요소들의 적극적이며 절제된 도입을 통해 교회건축이 추구하는 신성의 표현,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죄사함과 보편적인 은혜의 체험을 공간적으로 구현 하였다. 이러한 안도 타다오의 교회건축 접근방법은 오늘날 과소비적이고 종교적인 정체성을 상실한 현대 교회건축이 추구해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3) 정달용, 상징과 인간, 신학전망 제36호, 1977.봄.p5

참고문헌

- 高山正雄, 벽의 연구-Tadao Ando, 1994
- 안도 타다오 건축연구회, 안도 타다오 작품집, 기문당, 1989
- 황준 역, 안도 타다오-그의 건축 이야기, 미진사, 1999
- Tadao Ando, 건축디자인, 1998
- 김준영, 실내건축 공간디자인에 있어 상징적 요소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7
- 최은영, 전성, Ando Tadao 건축의 연출적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 발표논문집, 제18권제2호, 1998
- 문정민, 안우진, 고성룡, 안도 타다오 건축의 외부공간에 나타난 진입 시퀀스의 구성방식,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9호, 2001
- 이민성, 김정곤, 건축공간과 빛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1권제2호, 2001
- 김근식, 한종구, 이경희, 현대 교회건축에 나타난 상징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0권제2호, 2000
- 홍순명, 홍대형, 한국 기독교 교회의 건축 형식에 관한 비교연구, 대한 건축학회논문집 6권4호 통권30호, 1990
- 이강혁, 심우갑, 근대이후 교회건축에서의 빛의 도입 및 표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16권제1호, 1996
- 김경재, 근대건축이후 건축적 빛의 의미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 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5호, 2002
- 플러스 문화사, 특집 안도 타다오, plus 9507
- 플러스 문화사, plus 9606